

선미촌 아트빌리지 조성 '속도'

전주시, 올해 옛 성매매업소 면적 큰 2곳 활용...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활동

전주시가 올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에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선미촌 내 옛 성매매업소 2곳을 활용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오가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아트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트빌리지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촌으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이 될 5개 핵심 건물을 매입한 상태로 이 중 선미촌에서 영업했던 성매매업소 중 가장 면적이 큰 업소를 활용해 아트빌리지, 업사이클센터 등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트빌리지가 조성되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수공예 공방인 업사이클센터와 함께 선미촌 내에 각 블록별로 총 3곳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갖춰지게 된 명실상부한 서노송예술촌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각종 심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미촌의 변화된 청사진을



군산 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1일 오전 군산시청 광장에서 극단 동당의 '군산 3·5 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제시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기본(디자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 선미촌의 변화를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시에 권삼득로 선미촌 구간에 특화거리로 바꾸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와 통신선로 지중화, 가로수 식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총괄 기획자를 선임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장래의 쓰임새에 맞게 구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존 성매매업소의 기능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선미촌 거점공간과 복합문화 예술 공간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진행, 문화예술 미래공동체를 육성해 예술촌으로의 변화를

완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아시아문화심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통해 선미촌이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미촌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독립에서 평화와 통일로'

전주시·전주YMCA, 3.1절 기념식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독교청년회(YMCA)가 제99주년 삼일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애국애족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와 전주YMCA는 1일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공연장에서 시민사회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 청년, 청소년 등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식전 합창을 시작으로 3.1절 독립선언문 낭독과 한국기

독교 3.1운동 100주년 공동대표인 김홍수 목원대학교 교수의 '3.1운동 100년의 시대적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 문화공연,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다올마당'을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전주YMCA와의 민·관용 비담으로 3.1운동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공동 기념행사를 준비해 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23일까지 일제정비

전주시는 오는 23일까지 학교주변의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자와 주말 순찰반 등을 가동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등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불법 유동 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 여중생 투신 '친구들 괴롭힘 탓'

검찰, A양 등 5명 법원 소년부 송치... 2년 보호감찰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투신하는 사건의 배경에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탓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주지검은 1일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A(15)양 등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빵을 때리는 등 괴롭힘 혐의다. 이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B양은

자신의 SNS에 비관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해 8월 27일 전주시내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양의 부모는 "(딸은) 전교 부회장과 방송부장 등 늘 학급 임원을 맡아 오던 밝은 아이였다"며 "그런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 6명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 도심에 봄꽃 28만본 식재

전주시는 봄을 맞아 거리 풍경을 싱그러운 봄꽃으로 화사하게 단장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호동골 양묘장에서 생산한 팬지와 비올라 프리플라 등 10종의 봄꽃 28만본을 도심 곳곳에 식재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우선 시민들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봄꽃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등 도심 주요 장소 14곳의 테마화단과 팔달로와 충경로 등 22개 노선에 배치된 1600여 개의 가로화분 등에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봄꽃들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식재한다.

또한 오는 4월과 5월 개최되는 전주 국제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흥을 돋우기 위해 경기전 앞, 통일광장, 전주역 광장 등에는 특색 있는 다양한 소품을 도입한 테마정원을 꾸밀 예정이다.

봄꽃 식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봄꽃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청년건강검진사업 정신건강까지 확대

전주시보건소, 기존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평가·불안평가 설문 추가

전주시가 청년건강검진사업을 정신건강까지 확대한다.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만19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돌보는 청년건강검진사업의 검사항목에 기존 15종의 건강검진항목에 정신건강 설문항목을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년건강검진사업은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5,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한 청년들은 △B형간염 2종 △간질환 3종 △신장질환 3종 △심혈관질환 4종 △요검사 2종, 흉부엑스레이 등 총 15종의 검사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입시 준비와 취업난,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우울평가(PHQ-9)와 불안평가(GAD-7)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기로 했다.

설문평가 결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총 5,3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검진 결과 전체의 24.9%인 1,329명이 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징후 항목별로는 △간기능수치 이상 605명(27.6%) △고중성지방 538

명(24.5%) △고콜레스테롤 459명(20.9%) △신장기능수치 이상 377명(17.1%) △요당·요단백 검출 196명(8.9%)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소는 이상소견 검진자에 대해서는 이상 정도가 낮은 수치일 경우 식습관 개선과 운동요법 등을 안내하고,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세밀한 진료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또 보건복지부의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B형간염 항체 음성자 중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B형간염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진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만19세~30세)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주시보건소(중양동)와 덕진진료실(진북동)을 방문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군산서 바다로 차량 돌진 20대 운전자 사망

군산에서 바다로 차량이 돌진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3시35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진포 해양테마공원임지에서 차량 한대가 난간을 들이받고 바다로 돌진해 수색에 나섰지만 운전자 A(29)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벽 출항 준비 중이던 어선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해경은 숨진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추락한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하고 김씨 가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